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손 성 화 · 강 영 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요약 〉

본 연구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적장애청소년이 행복한 직업인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2개 중학교 및 20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청소년 2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토대로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족건강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였으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장애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는 가족건강성과 진로정체감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지적장애청소년, 가족건강성,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I. 서론

청소년기에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의미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발달 역시 성공적으로 성인생활로 전환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진로의 흥미와 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는 것으로, 진로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김성경, 2015). 진로정체감은 진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돕고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박지순, 2016). 기본심리욕구는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2018년도 박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진로정체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인으로(La Guardia, 2009)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한편 진로정체감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발달하며 그 중에서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족의 건강성이 주요 변인으로 제기되고 있다(Shin & Kelly, 2013). 지적장애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인과 유사하게 성장했을지라도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도가 높고 가족특성, 가족의 기능, 가족 분위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이은미, 백은령, 2010),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과 진로발달의 단계에도 가족환경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Brolin과 Gysbers(198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발달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지만 발달단계는 비장애 청소년과 유사하므로 모든 개인에게 내재하고 있는 기본심리욕구와 보편적 사회 환경인 가족건강성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기본심리욕구가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구조를 확인하여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한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청소년 202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지적장애청소년의 일반적 배경변인 (N=202)

| 변인 | | n (%) | 변인 | | n(%) | | |
|------|-------|------------|-----|------|------|-----------|------------|
| 성별 | 남 | 134 (66.3) | 학교급 | 중학교 | 1학년 | 20 (22.1) | 94 (46.5) |
| | 여 | 68 (33.7) | | | 2학년 | 38 (40.0) | |
| 가족형태 | 핵가족 | 28 (13.9) | | | 3학년 | 36 (37.9) | |
| | 확대가족 | 121 (59.9) | | 고등학교 | 1학년 | 31 (28.7) | 108 (53.5) |
| | 한부모가족 | 41 (20.3) | | | 2학년 | 38 (35.2) | |
| | 조손가족 | 12 (5.9) | | | 3학년 | 39 (36.1) | |

2. 연구도구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은 유대감, 의사소통, 문제해결, 가치공유의 하위유형으로 구성되며 총 34문항이다. 기본심리욕구는 Deci와 Ryan(2000)이 제작한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하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 문항이다. 진로정체감은 조은주(2001)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안

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으로 총 25문항이다. 본 연구의 연구도구 모두는 지적장애청소년의 인지적 수준에 맞도록 연구자와 중등특수교사 2명이 1차 수정한 후 특수교육전공 교수 3명, 특수교육학 박사 2명, 중등특수교사 5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후 지적장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7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최종 설문지로 확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처리

자료 수집은 지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1:1 혹은 최대 1:3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LISREL9.2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하였으며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

| 잠재변수 | 관측변수 | 비표준화 | | | 표준화 | AVE |
|--------|--------|------|------|---------------|---------|-----|
| | | B | S.E. | C.R.(t-value) | β | |
| 가족건강성 | 유대감 | 1.00 | | | .93 | .81 |
| | 의사소통 | .89 | .04 | 23.57*** | .92 | |
| | 문제해결 | .89 | .05 | 19.84*** | .87 | |
| | 가치공유 | .92 | .05 | 20.04*** | .87 | |
| 기본심리욕구 | 자율성 | 1.00 | | | .71 | .54 |
| | 유능성 | .96 | .09 | 10.31*** | .78 | |
| | 관계성 | .94 | .10 | 9.45*** | .71 | |
| 진로정체감 | 안정성 | .23 | .06 | 3.76*** | .27 | .52 |
| | 목표지향성 | .84 | .06 | 14.97*** | .82 | |
| | 독특성 | .85 | .06 | 14.65*** | .81 | |
| | 자기주장 | .90 | .05 | 15.57*** | .84 | |
| | 자기존재의식 | 1.00 | | | .89 |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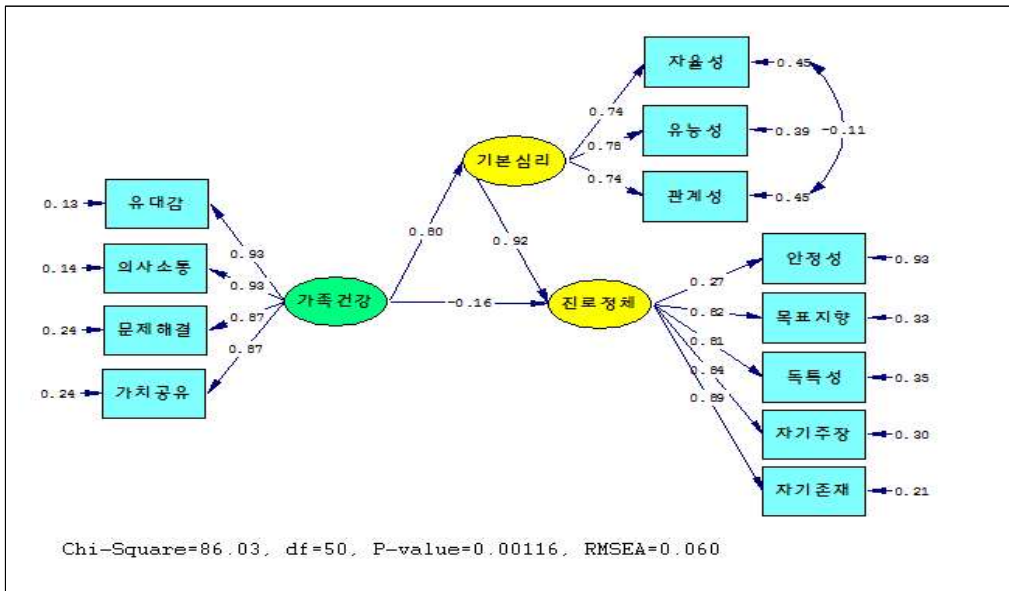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NNFI와 CFI 지수는 모두 .95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지수는 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1>과 같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 적합도 지수 | χ^2/df | RMSEA | NNFI | CFI |
|---------|-------------|-------|-------|-------|
| 적합도 기준 | 2이하 | .08이하 | .95이상 | .95이상 |
| 구조모형 지수 | 1.81 | .06 | .97 | .97 |

$\chi^2 = 57.41, df = 32$



<그림 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건강성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80($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진로정체감에 대해 갖는 직접효과는 .92($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가족건강성이 진로정체감에 대해 갖는 직접효과는 -.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은 진로정체감에 .76($p < .001$)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매개효과 검증결과

| 경로유형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가족건강성 → 기본심리욕구 | .80*** | | .80 |
| 기본심리욕구 → 진로정체감 | .92*** | | .92 |
| 가족건강성 → 진로정체감 | -.16 | .76*** | .60 |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적장애청소년의 가족건강성, 기본심리욕구,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가족건강성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기본심리욕구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건강성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심리욕구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고려하는 사회적·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할 때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개인별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어떠한지 먼저 파악하고,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과 가정·환경적 요소 등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명확한 인생의 목표와 흥미를 반영하여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1), 23-46.
- 박지순 (2016).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49-64.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은미, 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4(2), 63-90.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lin, D. E., & Gysbers, N. C. (1989). Care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155-159.
- Deci, E. L., & Ryan, R. M. (2000a).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La Guardia, J. G. (2009). Developing who I am: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identities. *Educational Psychologist*, 44(2), 90-104.
- Shin, Y., & Kelly, K. R. (2013).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optimism, intrinsic motivation, and family relations on vocational ident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2), 141-160.